

발로만 수영하는 정봉기 “2028 패럴림픽 메달 따겠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정봉기 당찬 포부
배영 50m 4차례 기록 경신
어깨 통증에 영법 전환 승부수
주5회 하루 4~5시간씩 맹훈련



정봉기(왼쪽)와 김은지 감독.

“올해 목표는 세계대회 출전을 위한 국제등급을 획득하고, 내가 세운 한국 신기록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국내 장애인수영(S2)에서 여섯 차례의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국내 정상에 우뚝 선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정봉기(26)가 패럴림픽 출전을 위한 세계 무대 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작한 정봉기는 배영 50m에서 남다른 기량을 발휘해 한국 신기록을 네 번이나 경신했다. 2017년 1분2초87로 시작해 2018년 56초21, 2019년 53초78로 매년 3초씩 단축하다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서 51초27의 기록으로 현재의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두 개의 한국신은 2018-2019년 자유형 50m에서 획득했으나, 현재는 다른 선수가 기록을 돌파한 상태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화려한 기록을 세운 정봉기는 아쉽게도 그동안 세계대회 출전 기회는 갖지 못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2019년 태극마크를 달았던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제대회에 불참했으며, 2022-2023년 상비군으로 활약했을 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제대회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기필코 국제대회에 참가해 국제등급을 획득, 세계 무대에서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 파리에서 열리는 패럴림픽 참가는 무산됐지만 다음 패럴림픽 무대는 반드시 서겠다는 목표에 훈련에 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영연맹팀을 맡은 전문체육지도자 김은지 감독의 지도가 큰

힘이 되고 있다. 한국 신기록으로 승승장구하던 정봉기는 2022년 어깨통증으로 위기를 맞았다. 슬럼프에 빠진 그에게 김 감독은 새로운 영법을 제안했다. 아픈 팔은 쓰지 말고 오직 발만 이용해 승부를 결정하는 획기적인 전략이었다. 영법을 바꾼 초기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옛 기량을 되찾는 것은 물론 새 기록에 도전할 정도로 놀라운 향상을 보였다.

김 감독은 “봉기의 가장 큰 장점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영법이 바뀌었음에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며, 오히려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감을 회복한 정봉기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견재함을 과시하며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훈련은 주 5일, 매일 4~5시간씩 영주수영장과 광주장애인체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광주장애인체육센터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주수영장에서 실전훈련을 하고 있다. 실전훈련에서는 가끔 비공식 한국신을 기록해 올해 무대가 더욱 기

대된다.

발로만 하는 백물핀킥으로 영법을 전환한 만큼 하체 근력 키우기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다.

훈련이 없는 쉬는 날에는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정봉기는 틈틈이 세계 주요 선수들의 시합 장면이나 영법을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도 한다. 그는 “가끔 훈련 중 힘이 들 땐 ‘이 순간을 넘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버티는 것이다”면서 “하지만 도저히 힘들 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감독님이 냉정하게 지적해 주면서 동시에 용기도 불어넣어 준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봉기는 모든 점에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영법보다는 자신이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영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금의 기량을 계속 쌓아간다면 세계 무대에서도 정상급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올해 세계 등급 획득에 이어 전국체전에서 한국 신기록과 함께 배영 2관왕에 도전하는 정봉기의 꿈이 이뤄져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정봉기(오른쪽)가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김은지 감독과 영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제공>

양오열 파리 패럴림픽 지원단장 선임

양오열(사진)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2024 파리 패럴림픽 지원단장에 선임됐다.

양 부회장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패럴림픽에 참석해 대한민국 선수 지원단을 총괄한다.

그는 지원단장으로서 ▲코리아하우스 운영 ▲한식도시락 제작·지원 ▲경기참관 응원단 구성 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IPC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는 이번 패럴림픽 지원을 위해 대한장애인체

육회에 후원금 1억원을 기탁했으며, 6월 후원협약식 이후 공식스폰서로 등록될 예정이다.

양 부회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 왔다”며 “패럴림픽 선수단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광산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직접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각국에 알리는 막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원동형 2차전지 강소기업인 동진기업(주)을 운영 중인 양 부회장은 지난 2월 빛그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위촉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실적패’ 한국 유도 올림픽 실수는 없다

대한유도회 “교육 철저”

대한유도회는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대회 혼성단체전에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실적패한 책임을 물어 유도대표팀의 황희태 감독과 원종훈(철원군청)에게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29일 “현장에서 실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4 파리 올림픽에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다시 철저하

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도대표팀은 지난 2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무바라라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혼성단체전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에서 세 번째 선수 원종훈이 매트에 올라가 부상을 이유로 기권하면서 실적패했다.

IJF 규정에 따르면, 매트에 올라온 선수가 경기를 거부하면 해당 팀은 실적 처리하고 더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출전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기 어려우면 해당 체급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1패만 안으면 되는 데, 한국 대표팀은 이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IJF도 대회 당시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 촛극이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에 패한 한국은 패자전으로 밀린 뒤 독일을 4-1로 눌러 조지아와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하는 듯했다.

그러나 독일이 한국의 규정 위반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고, IJF가 실적패를 통보하면서 한국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골프를 한다는 것은 외롭다”

‘LPGA 15승’ 29세 톰프슨, 전격 은퇴 선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15승을 올린 렉시 톰프슨(미국·사진)이 29세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톰프슨은 올해가 그의 풀타임 골프 일정을 소화하는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은퇴 의사를 밝혔다.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는 톰프슨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갖고 산다”며 “골프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지는 일이 많다. 계속 카메라 앞에 서고, 열심히 연습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비판받아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12세 때 US여자오픈에 출전, 골프 신동으로 불렸던 톰프슨은 지난해부터 출전 대회를 크게 줄이며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이어간 톰프슨은 “골프를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며 외롭다”며 “최근 골프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프로 운동선수로서 겪는 많은 일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골프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던 그레이스 머리(미국)의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오빠가 모두 프로골퍼인 집안에서 자라난 톰프슨은 16세에 LPGA 투어에서 첫 승을 올렸



고, 300야드에 가까운 장타를 날리며 필드를 누볐다.

19세였던 2014년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 메이저 대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는 여러 차례 역전패 당했다.

특히 2017년 ANA 인스퍼레이션(옛 나비스코 챔피언십) 때 톰프슨은 쉽게 우승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3라운드 때 공을 잘못 마크한 것이 드러나 총 4벌타를 받고 연장전으로 끌려가 한국의 유소연에게 우승컵을 넘겨줘야 했다.

톰프슨은 당시 경기위원에게 “이거 농담이죠?”라고 물어봤다며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덕분에 예상치 못한 팬을 얻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올해가 골프의 마지막이었는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메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도시의 비메로

이창훈 개인전